

선택 6·4

이런 후보가 좋아요



광주·전남 유권자 30명에 듣는다

수평적 사고로 바라보는 사람

윤현석(컬처네트워크 대표이사·34)=민주주의의 씨앗을 다시 키우고 모두를 위한 창조와 많은 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줄 아는 리더가 우리의 시장이었으면 한다. 리더는 항상 시민에게 눈을 맞추고 수직적 결과보다 수평적 사고로 지역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 문화도시 광주가 이름뿐이 아닌 진정한 예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예술가가 될 수 있는 지역 문화환경을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소외된 이웃 보듬어 줄 후보

김철승(공무원·56)=시민과의 약속인 선거공약을 반드시 지키는 후보가 좋다. 특히,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등 광주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참신한 시책을 개발하고, 정부나 세계의 경제·문화·환경 등의 동향에 적극 대처하는 후보가 되었으면 한다. 이와 함께 민주·인권의 도시인 광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소외된 이웃을 따뜻하게 아우르고 보듬어 줄 수 있는 후보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인 사람

안주희(가정주부·35)=만 3살된 아이를 키우는 주부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도시 광주를 만들어 줬으면 한다. 집 밖으로 한걸음만 나가면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아파트 단지에서 마저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부터, 과속을 일삼는 대중교통 등 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광주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이 최우선 되는 행복한 광주를 만드는 데 구의월부터 시작까지 모두가 힘을 모아주셨으면 한다.



지역기업 키워줄 수 있어야

김범수(금호타이어 대리·35)=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민의 생활이 윤택해 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기업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과 제도의 수립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광주가 3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는 기사를 보고 지역의 대표적인 수출기업에 종사하는 1인으로서 무척 기뻐다. 앞으로 39년 연속 흑자를 달성할 수 있도록, 비전을 보이는 후보자를 뽑겠다.



한번 말하면 끝까지 지켜주길

김양규(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이장·59)=농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초심(初心)을 절대 잃지 않는 후보들이 당선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진심을 다해 FTA(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해 상처받는 농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올바른 정책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한다면 보다 살기 좋은 농촌이 되지 않을까 한다. 말로만 약속하고 나중에 이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너무도 자주 봐 실망했는데, 이번에는 안 그랬으면 한다.



안과의사...광주 시민운동 '만형' 정·관계 잔뼈 굵은 '행정 달인'

◇성장과정=윤장현 후보는 1949년 광주 구동에서 4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광주 서중, 살레시오고를 거쳐 조선대 의대를 졸업한 뒤 광주에서 30여 년째 안과 의사(광주 아이안과, 구 중앙안과)로 활동 중이다. 군의관으로 복무한 2년을 제외하고는 광주를 단 한번도 떠나지 않았다. 확장시절 독서로 세상과 역사에 눈을 뜨면서 민주주의와 생애, 지역을 살리는 일에 몰두했다. 1980년 5월 항쟁 이후는 '광주정신'의 세계화에 열과 성의를 다해왔다. 그는 성장과정에서 부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광주 부시장까지 지냈던 그의 부친은 몰락한 선비 가문의 원동으로 태어나 독학으로 글을 배워 공직 생활을 이어갔다. 부친은 그에게 항상 배울 것과 당당하게 살 것을 주문했다. "아버지가 항상 큰 애, 장남이라고 하지 않고 '큰 사람아'라고 불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대학 다닐 때는 제 지갑을 검사하셨는데, 돈이 들어있지 않으면 꾸중 들었던 생각이 나요. 좋은 생각·의지가 있어도 선배라는 사람이 호주머니가 되면 당당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셨던 것 같습니다." ◇리더십=윤 후보는 상대를 배려하는 따뜻함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태도를 자신의 강점이자 리더십으로 꼽고 있다. 앞서 가거나 자기 주장을 먼저 내세우는 일반적인 정치인들의 화법과 달리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근조근' 이야기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 그는 이런 리더십을 바탕으로 30여년간 수 많은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이끌어왔고,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만일 권위적으로 군림하거나 독단적이었던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주변 지인들의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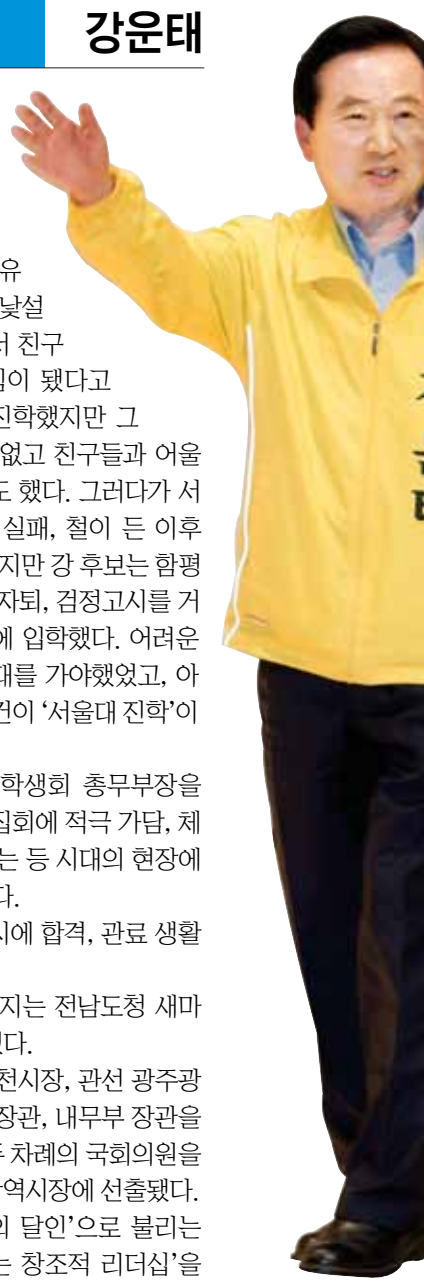


평생을 광주서 보낸 '토박이' 배려·정청·추진력 강점 정계·문화·해의 폭넓은 인맥

윤장현 광주시장 2강 후보 탐구 강운태


다양한 영역의 시민사회운동을 이끌면서 현장 중심의 철학과 정책을 중요시하고 창의력을 존중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끊임없이 현장에서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중심형 리더십의 철학이 그만의 강점이다. 부드러운 듯 하지만 한번 결심하면 끝을 보는 추진력도 그의 리더십 특징이다. 수련의 시절, 자심한 등산을 실천하기 위해 이리저리 밤에 기차를 타고 내려가 한 숨도 안자고 지리산종주를 하고 월요일 새벽에 출근한 이야기, 사진에 빠져 사진술을 독파한 사례,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생명부터 건지기 위해 이리저리 폭발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이야기 등은 그의 추진력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인맥=윤 후보를 한번이라도 만난 사람은 작은 키에 비해 한 이 넓은 그의 가슴에 반하곤 한다. 그는 사람을 만날 때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존댓말을 쓰는 것으로 유명하다. 상대방 생각을 깊이 듣고 존중하는 태도의 시작이 경어 사용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손잡고 안아주는 스킨십도 그의 사람 대하는 태도를 엿게 한다. 윤 후보에게 '형님'과 '동생'이 많은 것은 이런 따뜻함에 매료된 때문이다. 인맥은 광주를 넘어 전국 각지에 퍼져 있다. 중앙 정치인들이 광주의 민심을 읽기 위해 윤 후보를 맨 먼저 찾아 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그의 학식과 인맥을 알 수 있게 한다. 교류의 폭도 시민사회진영과 의료계를 넘어 등산, 사진, 문화예술계, 해외 인권운동가 및 학자 등 광폭이다. 가수 장사익, 테너 임용근 등이 후보가 부르면 득달 같이 달려오는 지우들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성장 과정=강운태 후보는 1948년 화순에서 태어나 공무원인 아버지를 따라 전학을 거듭하며 유년시절을 보냈다. 늘 낯설고 힘들었던 환경에서 친구들과 우정의 힘이 됐다. 광주 동중에 진학했지만 그다지 공부에 취미가 없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데 열중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서울 고등학교 진학에 실패, 철이 든 이후 첫 시련을 겪는다. 하지만 강 후보는 할말 학다리고 재학 중 자퇴,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국립대를 가야했고, 아버님의 대학 지원 조건이 '서울대 진학'이 었기 때문이다. 대학 시절에는 총학생회 총무부장을 맡아 3선 개헌 반대 집회에 적극 가담, 체포돼 구류 처분을 받는 등 시대의 현장에 서 아픔을 겪기도 했다. 그는 11회 행정고시에 합격, 관료 생활에 발을 디뎠다. 그의 공직 첫 부임지는 전남도청 새마을과 수습사무관이었다. 강 후보는 전남 순천시장, 관선 광주광역시, 농림수산부 장관, 내무부 장관을 역임했고, 16, 18대 두 차례의 국회의원을 거쳐 민선 5기 광주광역시장에 선출됐다. ◇리더십='행정의 달인'으로 불리는 강 후보는 '독심 있는 창조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수직·수평의 리더십을 넘어 탁월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독심 있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관선 광주시장 시절에는 광주비엔날레를 창설했으며 허허벌판이었던 첨단과학 산업단지에 삼성, 아남반도체 등을 유치




검정고시로 서울대 진학 독심·의리·창의성 장점 조직·인맥 창출, 관리 귀재

해 광주경제의 기틀을 닦았다. 내무부 장관 시절, 김영삼 대통령을 설득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1997년 열린 국가주도 기념식에서 '일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첫 장관이 되기도 했다. 여기에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에 광주를 문화수도로 지정할 것을 제안해 현실화시켰다. 또한, 민선 5기에는 과학비즈니스 벨트 선정,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등도 강 후보의 '독심있는 창조적 리더십'이 낳은 결과물들이다. 특히 믿는 사람은 끝까지 함께 하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의리와 배려의 리더십'도 강하다는 평가다. ◇인맥=내무부장관과 농림수산부 장관 등 25년의 관료생활과 16, 18대 국회의원 등을 거치면서 정·관·재계는 물론 문화계를 아우르는 폭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강 후보의 인맥 형성은 상대의 의견을 깊이 존중하고 이를 현실화시키는 능력에 의해 형성됐다. 강 후보와 인연을 맺은 대부분의 인사들은 정청과 현안에 대한 열정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얘기한다. 신뢰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고 함께 가는 것도 두터운 인맥을 쌓은 배경이라는 평가다. 이 같은 인맥은 민선 5기 강 시장이 국회 확보, 세계적 행사 유치 등을 추진할 때 든든한 배경이 됐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서 고건·이수성 전 국무총리, 가수 조영남, 탤런트 임현식씨도 강 후보와 소주 한 잔 하는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강 후보가 지난 17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시고 만들었던 '빛나는 대한민국'은 전국적 지지 조직으로 회원만 2만~3만명을 넘어섰던 것으로 알려져 그의 인맥 규모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6월은 나라사랑 호국보훈의 달
당신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조국 일체 안을 이루어 할 통일 한국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나라사랑나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고귀한 희생 받들어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 6월입니다.
이처럼 뜻 깊은 달을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높이 받들어 기립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 신명을 바친 국가유공자들의 고귀한 헌신 위에 이룩되었습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6·25전쟁에서 자유 수호를 위해 젊음을 바친 참전용사, 그리고 불의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꽃피운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공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며 나라사랑의 고귀한 정신을 우리러 받들고 배우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도리일 것입니다.
정부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보훈정책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분들이 우리 사회로부터 존경받으며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호국의 진정한 의미 되새겨야 할 때
국민 여러분,
국가보훈의 진정한 의미는 더욱 부강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안보상황은 여전히 엄중합니다.

북한은 크고 작은 도발행위를 거듭하며 우리에게 대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안보상황도 유동적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 호국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국난극복 전통 되살려 더욱 안전한 나라를
오랜 역사를 통해 수많은 위기를 국민의 저력으로 극복해온 위대한 전통을 되살려 더욱 튼튼한 나라, 국민 안전이 담보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번 호국보훈의 달이 우리의 이러한 다짐을 되새기고 실천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5. 30.
국무총리 정 홍 원